

| 15일 Market Index |          |           |         |
|------------------|----------|-----------|---------|
| 코스피              | 2601.28  | 코스닥       | 899.03  |
|                  | (+28.39) |           | (-0.44) |
| 금리 (미국 9월)       | 3.850    | 환율 (원/달러) | 1325.90 |
|                  | (+0.014) |           | (+0.20) |



## AI 투자 바람에 D램도 날개... 반도체 시장 희망 보인다

4분기 D램값 17.8% 오를듯  
메모리업계 실적개선 전망

SK하이닉스 이어 삼성전자  
HBM3 공급으로 수익성 ↑  
증권업계 목표 주가도 상향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도 확실시된다. 기술 개발과 투자 경쟁도 다시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3면〉**

17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최고점 수준인 각각 9만 원대, 15만 원대로 상향 조정했다.

메모리 업황 회복 전망이 이어지는데 따른 조치다. D램 가격에 대해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는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7.8%나 오를 것으로, 트렌드포스도 5% 상승을 예측했다. 수요가 다시 공급을 넘어선다는 것. 낸드플래시도 재고 정점을 지나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모바일 D램 가격을 20%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하락 후 결국 공급자 우위로 돌아섰다는 얘기다.

메모리 업계 흑자 전환도 머지 않았다는 기대도 나온다. 종전까지는 내년에서야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지만, 시장 분위기가 예

사보다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4분기부터는 수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3분기 실적도 당초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다음주 미국 마이크론 실적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메모리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AI) 수요다. 데이터센터 업계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AI 반도체 투자에 전력을 쏟는 가운데,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3 공급을 시작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모습이다.

새로운 규격인 DDR5 D램 보급 확대에 기대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가격 하락으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된 영향이다. DDR4 역시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하기 시작했다.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서 DDR5로 전환하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진다.

스마트폰 시장도 모처럼 회복할 기미가 보인다. 애플 아이폰 15가 예상을 뛰어넘어 흥행에 성공할 조짐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Z 시리즈 인기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중국 시장도 심상치 않다. 애플 아이폰 15가 정부 규제 속에서도 높은 예약판매 기록을 썼고, 최근 출시한 현지 폴더블 제품들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시장을 키우고 있다. 화웨이



추석 대목 맞은 전통시장

추석 연휴를 열흘 정도 앞둔 17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다. /뉴시스

사태로 '애국 소비'가 시작된 것도 부품 업계 입장에서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 기술 경쟁도 다시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통합칩(SoC)과 메모리로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는 위기 의식도 크다.

삼성전자가 젠 걸음을 걷고 있다. HBM에서 한 발 늦은 대신, GDDR7과 PIM 등 D램 기술과 새로운 규격인 CXL까지 차세대 고성능 제품 생산을 시작하며 '조격차'를 증명할 준비 중이다. AI 도입 준비도 거의 마무리됐다. **〈3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3 물류&모빌리티포럼'

###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초국경 물류위한 현재와 미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도래하면서 글로벌 물류도 대변혁기 시작했다. 코로나19 기간 폭발했던 국내 물동량은 잠시 소강 상태다. 반면 글로벌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시장의 지속 성장속에 첨단 기술의 물류 분야 적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이동로봇, 드론, 전기차 등 모빌리티까지 기술 융합에 적극 가세하면서다. 이에 따라 퍼스트마일, 미들마일, 라스트마일의 이동은 더욱 빨라지고 또 효율화되고 있다. 기업들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업간, 얼라이언스(동맹)간 이합집산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초국경 물류를 잡기 위한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에서 조명해본다.

- 주 제: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 일 시: 2023년 9월19일(화) 오후 2시
-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등 록: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 의: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기조강연: 인천대 송상화 동북아물류대학원장
- 강 연: 아워박스 박철수 대표, 하이리온산업 김서영 대표, 로지올(생각대로) 최규범 부사장
- 후 원: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통합물류협회



## 물가 못잡는 美, 금리인상 촉각... “이달은 아닐 것”

美 연준 19~20일 FOMC회의  
고물가 지속... 인상 시간문제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미국 경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을 낮추고 노동시장의 열기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예상과 달리, 한쪽을 누르면 또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금리인상 시점이다. 지난 6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0.25%포인트(p)씩 두차례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7월 금리인상 이후 마지막 한달이 이달, 혹은 11월과 12월 중 언제 쓰일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19~20일(현지시각) FOMC 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FOMC 회의 결과는 한 국시각으로 오는 21일 오전 3시 공개된다.

◆지표만 보면 '금리인상' 가능성  
“데이터가 뒷받침되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9월까지 2개의 고용보고서

와 2개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 많은 경제활동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 지난 7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고용보고서를 보면 비농업 일자리는 7월 15만7000개, 8월 18만7000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농업 일자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초 급격히 감소한 뒤 대면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3월 60만 개까지 증가하던 일자리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농업 일자리가 늘어나면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인상된 임금은 생산품에 반영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즉, 비농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는 물가 감소를 이끌 가능성이 커 더 이상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아직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6.4%에서 7월 3.0%로 떨어지다 또 다시 올랐

다. 근원 소비자물가도 4.3%를 기록해 4%대를 이어갔다. 비농업 일자리가 둔화하는 등 대내적으로 물가하락을 부추기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국가유가 상승 등이 지속돼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대다. 금리인상의 첫번째 목적이 물가안정에 있는 만큼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시장, 9월 금리동결 전망...  
“상황 지켜볼 것”

시장에서는 올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달

은 아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미국은 국제유가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비가 약화되는 추세다. 소비약화라는 변수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금리인상을 결정할 것이라 설명이다.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는 지난주 “이달 회의에서 또 한번의 (금리 인상) 건너뛰기(skip)가 적절할 것”이라며 “하지만 건너뛰기는 멈춘다는 뜻이 아니며, 향후 몇 달간 데이터와 전망을 더 평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진화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총리 해임’ 민주 결의에 “막장 정치투쟁... 피해자는 국민”  
▲ 정의, 22대 총선대비 정책자문단 구성... 각 분야 총 95명 **〈사진 뉴시스〉**

▲ 보건부, 안중근 등 독립운동가 6인 인사카드 최초 발굴·공개  
▲ 10·11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온라인으로도 가능



▲ 여당 “이재명 단식장 찾아갈 의향 없어... 방탄·내부 결속용” **〈사진 뉴시스〉**  
▲ 민주 “윤 정권 폭정 멈추고, 한덕수 해임·국정쇄신 나서야”